

세계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부산 녹산하수처리장에 11.2MW ... 1만5000가구 전력공급에 CO₂ 감축

부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6600여m² 부지에 11.2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월4일 발표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에너지기업 C사가 부산시에 2.8MW 4대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시 관련부처가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에는 사업비용이 총 600여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발전시설이 가동하면 부산지역 1만5000여 가구에 전력과 5000가구에 난방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석유나 가스 등에서 추출한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 열과 전기를 얻는 효율적인 차세대 발전방식으로 현재 서울 노원구에 2.4MW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단일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연간 2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04>